



- 11 고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길 원하노라.
- 12 고난의 날에 주님이 네게 응답하시길 원하노라. 하늘에 초승달이 있도다 (월삭 제외).
- 13 라쉬 (성전)에서 그리고 북쪽 (짜폰)에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하노라.
- 14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노라.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를 허락하시길 원하노라.
- 15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. 모든 소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원하노라. 모든 소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.
- 16 마음에 원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기 원하노라. 어떤 이는 활을, 어떤 이는 창을 의지하나,
- 17 보라.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,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시라. 우리의 활소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,
- 18 우리의 베델(성소)이 내일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. 하늘의 하나님, 주님을 찬양하라라.
- 19 당신원 존귀함으로 내가 찬양합니다.

파피루스 암헤르스트

지금으로부터 130여년 전에 네덜란드 사람 암헤르스트가 파피루스(Papyrus) 몇개를 골동품 수집용으로 사들였습니다. 민중 이집트어체로 쓰여진 이 파피루스 조각을 어떻게 읽는 줄도 몰랐습니다. 학자들도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하던 민중 언어 체계를 당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때입니다. 그러다가 구입한지 몇 년 뒤, 암헤르스트가 죽고 그 딸이 자기의 몫으로 남겨진 골동품들을 하나 둘 내다 팔던 중, 파피루스 암헤르스트

(Papyrus Amherst) 라고 불리는 이 파피루스도 팔려나갔습니다. 파피루스가 세상에 나온지 거의 100년이 되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 파피루스가 해독이 되었는데요. 바로 그 파피루스의 내용이 시편 20편과 매우 유사합니다.

이 파피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날로 곧바로 고고학 도서관에 가서 이 파피루스에 대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. 도대체 이 시편을 파피루스에 써가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,

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는지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.

이 시편을 기록하고 노래한 사람들의 삶이 참 기구했습니다. 엘레판틴 섬의 유다 사람들이 이 시편을 파피루스에 기록하기 100여년전 유다가 멸망했습니다. 유다가 패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, 바벨론과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. 유다 사람들은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자하는 방도를 찾아보겠노라고, 눈에



보이는 강대국과 권력을 쫓아다녔습니다. **바벨론**의 왕에게 유다를 의탁해야한다는 사람들과 **이집트**의 파라오에게 **유다**를 의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며 싸웠습니다.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고, 사람들을 선동해서 상대방을 포함했습니다. 하나님만을 의지해야한다는 **예레미야**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상주의자이자 몽상가라고 배척했습니다. 결국, **바벨론**에 의해 **유다**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.

나라를 잃어버린 **유다** 사람들이 일부는 **바벨론**으로 그리고 일부는 **이집트**로 이주했습니다. 더러는 포로로 끌려갔고, 더러는 자유를 찾아 이주했습니다. **이집트**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, **이집트** 나일강 상류의 작은 섬 **엘레판틴**이라는 곳에서 살던 작은 공동체가 있

습니다.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을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.

엘레판틴 섬에서 나라를 잃고 타향살이를 해야하는 **유다**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? 그런데,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작은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(기원전 6세기, 525BCE). **엘레판틴** 섬에서 살았던 **유다**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보면, 그리 감사할 만한 것이 없었을 것같았습니다. 길이가 2km, 너비가 400m밖에 안되는 그 작은 섬에서 농사를 짓는다손 치더라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고, 그나마도 **이집트**의 강력한 적이었던 **누비아** 사람들을 대치하고 있는 군사 기지의 역할도 겸했던 섬이었던지라,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곳입니다.

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시편을 노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? 고난 속에서 하

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, 내게 복 주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런데, 시편 20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.

고난을 맞이하게 되면, 사람들은 대부분 살궁리를 하느라,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던가,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찾게 마련입니다. **유다** 사람들도 그랬습니다. 그렇지만,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, 자기들의 방법을 의지했던 **유다** 사람들이 얻은 것은 지난한 피난 생활일 뿐이었습니다.

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정착하게 된 고난의 때에 **유다** 사람들은 비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이 노래 하였던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. “어떤 사람은 병겨,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, 우리는 우리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!” 이것은 고난이 바뀌놓은 **유다** 사람들의 모습입니다.

이집트의 팍팍한 삶과 나라 잃은 민족의 비극 속에서 **유다** 사람들은 비로서 자기들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. 자기들이 걸어왔던 과거와 걷고 있는 현재를 바라보건대, 내가 의지해야 할 바로 하나가 있다면, 그것이 **여호와**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노래. **유다**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비로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.

오늘날 풍요로운 문화와 물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,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풍요는 복이고, 고난은 재앙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**욥**의 친구들처럼 고난을 겪

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, 그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삶에 못질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던, 그리고 겪고 있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.

그러나,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. 의지할 것 없는 광야,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.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. **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무게에**

짓눌려 죽게 놔두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유익을 주십니다.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, 하나님만 보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.

고난이 나라 잃은 **유다** 백성을 바꾼 것처럼,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. 왜냐하면, 고난은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만지심이기 때문입니다.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. 

✿ 이 글에 소개된 파피루스 암헤르스트 63의 Column 12, Line 11-19의 번역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습니다.

Toorn, Karel Van Der. *Papyrus Amherst 63*.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448. Münster: Ugarit Verlag, 2018.